

“광주지하철역, 새이름으로 바뀐다”

광주시는 그동안 역명(정거장)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도청역 등 3개역에 대해 변경절차를 마치고 지난 17일 새로운 역사명칭을 고시했다.

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실시한 선호도, 타당성, 호감도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시 지명위원회 자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뒤 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설명을 마쳤다.

그 결과, ‘도청역’은 ‘문화전당(구도청)역’으로, ‘호남대입구역’은 ‘운천(호남대입구)역’으로, ‘중심사입구(학동3거리)역’은 ‘학동·중심사입구역’으로 각각 바뀌게 된다.

문화전당(구도청)역은 지난해 10월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함에 따라 역명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운천(호남대입구)역은 호남대학교의 주요부서 등이 2008년에 개통 예정인 광주지하철 1호선 2구간 인근에 위치한 광산캠퍼스로 이전하고 쌍촌동 캠퍼스는 일부 부서만 남아 시민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역명 변경이 추진됐다.

또 역명을 둘러싸고 주민과 관련단체들 사이에 갈등을 빚어왔던 ‘학동·중심사입구’역은 관련단체들이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역명변경심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정안에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동차 노선표기 및 안내방송 교체작업 등 역사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역사 명칭 변경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등 관련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도청」으로 되어있는 광주시내 도로안내 표지판을 조속한 시일내에 「문

화전당(구도청)」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대구환경연, 오염물질 분석능력 ‘우수’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오염물질 측정능력의 우수성이 검증됐다.

대구환경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전국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관 개별항목 평가에서 대부분이 만점인 ‘매우만족’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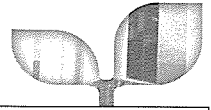
이번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관 숙련도 시험은 전국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환경관리청, 물환경연구소, 환경관리공단, 측정대행업체 등 7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항목은 먹는물분야의 경우 8개 항목으로 ▲일반항목인 암모니아성질소, 불소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및 농약항목인 클로로포름, 벤젠, 파라틴은 ▲중금속인 비소, 납, 수은에 대해 이뤄졌다.

또한 수질분야의 경우는 11개 항목으로 ▲일반항목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총질소 ▲유해화학물질인 시안, 페놀 ▲중금속인 비소, 수은, 카드뮴, 납, 크롬에 대해 평가됐다.

이와 함께 대기분야는 굴뚝 먼지 1개 항목에 대해, 폐기물은 납, 총크롬, 구리와 6개 항목에 대해, 토양분야는 카드뮴, 벤젠, 톨루엔, 아연, 에틸벤젠, 자일렌 6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분야별 항목 평가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일정농도의 오염물질을 포함한 시료를 조제해 측정기관에 제공하고 각 기관의 개별 평가항목 측정값과 기준값에서 Z값을 산정하여 Z값에 따라 각각 매우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미흡 0



점을 부여했다.

Z값의 합을 100점으로 환산해 항목별 평가에 '미흡'이 없으며 분야별 환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하고 70점 이하인 경우를 '부적합'으로 평가됐다. 항목별 평가에 '미흡'이 있으면 '부적합'으로 평가됐다.

울산, 대공원 '곤충 생태관' 착공

다양한 곤충의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울산 대공원 곤충 생태관'이 착공됐다.

울산시는 총 18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구 옥동 146-1 울산대공원 나비원 옆 부지 4,851㎡에 '울산대공원 곤충 생태관'을 지난 11일 착공, 오는 2007년 4월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곤충 생태관은 지상 1층, 건축면적 713㎡, 연면적 670㎡, 전시면적 468㎡ 규모로 건립된다.

인근의 나비원과 연계 곤충에 대한 새로운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곤충생태관은 생태체험적, 교육지향적, 고품격, 친환경 등을 전시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전시 공간별 주요 내용을 보면 곤충의 세계로, 지구의 주인 곤충, 곤충으로 살아가기, 곤충의 한살이, 곤충의 신비한 능력, 눈으로 보는 곤충 이야기 등 다양한 아이টে으로 전시된다.

또 체험 영상관, 생활속의 곤충 이야기, 곤충의 사회적 이용, 사라져 가는 곤충, 곤충 체험관, 곤충 학습관, 거대 곤충 모형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등으로 구성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린이에게는 색다른 체험 공간을 어른에게는 추억을 환기시키는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까지 실행할 수 있는 종합

곤충 체험관으로 친환경 도시로 재탄생하는 울산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일본 시장개척에 나서

충청남도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충남지역 11개 중소기업체가 참여하는 시장개척단을 구성,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나고야 지역을 순회하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했다.

충남도가 이번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후쿠오카는 화학·방직·기계·인쇄제본·식료품 등 제조업등 이외에 하카타 견직물·하카타 인형 등의 전통산업도 활발한 상업도시이며, 나고야 지역은 메이지유신 이전부터 면직물·도자기의 집산지로 상업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항공기 중심의 군수산업이 발전하였고, 전후에는 우리나라 6·25전쟁의 특수 경기에 힘입어 철강·비철금속·화학 공업과 조립공업 등이 크게 발달하여 공업 제품이 전체 생산량의 61%를 차지하며, 그 밖에 섬유·도자기·목재·식품 등의 공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공업도시이다.

이러한 일본의 대표적인 상업·공업도시에 시장개척단을 파견, 이들 지역에 대하여 시장개척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해외바이어와의 직접상담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 배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

활동기간 동안 총 80여명의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갖게 될 예정이며 현지에서 30만불 계약을 목표로 상담하고 귀국 후 200만불의 추가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영민하이테크, (주)오로라, 대우

기공(주), (주)브이엘케이, 세광테크놀러지, (주)한도, 미라클, (주)대림엠티아이 등 8개사와 인삼 가공식품류 제조업체인 큰바위식품, 청정인삼, 갯위더즈(주) 등 3개사이다.

道 관계자는 “충남도의 4대 전략산업중 하나인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매년 70%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 자동차부품 업체의 육성을 위해 내년에도 자동차부품업종을 중심으로 해외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계기로 인삼의 중추도로서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도내 인삼 가공업체의 수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푸른하늘 맑은공기를 위한 경기도의 틀” 마련

경기도가 오는 2014년까지 미세먼지(PM10)를 국가기준 (70ug/m³)보다 강화된 40ug/m³으로 저감하고, 이산화질소(NO₂) 또한 0.02ppm(국가기준 0.05ppm)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경기개발연구원 다산홀에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과 관련해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NGO,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수도권 대기질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지역 현실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그 동안 경기도가 연구해 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일부와 향후 진행계획을 발표하고 아울러, 안양대학교 구윤서 교수를 비롯한 국립환경연구원, 서울시정

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회와 함께 참석한 기초지자체 공무원 및 기업체 환경관리인, 환경NGO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배출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오염배출 저감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이행사업장은 배출량 거래 및 이전과 배출부과금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2009년까지 시내버스를 CNG(천연가스)버스로 전량교체하고, 하이브리드 승용차 43,000여대와 및 저공해경유차 1,200여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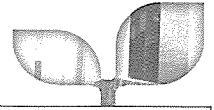
이밖에 도시녹지 확충과 도심지 바람통로 확보 등 자연친화적인 도시계획 유도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기도관계자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서는 지난 10월말 완료 후 오는 11월중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서울·인천과 공조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 받는 지방자치시대의 환경행정을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남도, 생물식품산업에 2천억 투자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모두 2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전략산업인 생물식품산업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10개년 계획은 식생활의 현대화, 식품 소비추세의 변화, FTA의 진전 등 급변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술혁신과 판로확대 등을 통해 생물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말 기준 전남의 식품 산업체는 제조업의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단순 가공업 위주로 인해 생산액은 제조업의 4.5%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식품시장은 갈수록 위생과 안전이 더욱 중시되고 R&D 등을 통한 우수한 제품과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타 지역보다 비교우위의 생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강점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제품화 기술 확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생물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기술개발을 비롯해 마케팅 지원, 기업 유치,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에 31개 세부사업을 추진케 된다.

목표 연도인 오는 2016년에는 생산액 7조원과 수출액 10억불 달성과 함께 1만5천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고 수준의 산업화 기술 336개 이상 확보, 건강기능식품 생산 전문업체를 100개 이상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개발기술의 상업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 개발 및 시험비용 지원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인증도 적극 지원,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전문가

가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구축케 된다.

이와 함께 생물산업지원센터의 GMP 시설을 활용해 우수제품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동브랜드(남도미향) 파워 육성과 함께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요 소비처인 수도권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등 제품생산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총 34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능성식품산업 특구 조성 등 기업 입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지역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이전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스타기업 유치·육성을 위해 225억원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미 추진 중인 인프라시설의 조기 완료하는 한편 비교 우위 생물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천연자원연구원을 설립하고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93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남도 김갑섭 경제과학국장은 “이번 계획은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화 촉진과 마케팅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선도기업 유치 등을 통해 전남의 생물식품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데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이 의지를 갖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월간 '환경기술인' 지의 홈페이지

www.keef.or.kr